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베드로전서 —

채영삼*

1. 베드로전서 2:11-12

GNT ⁵	11 Ἀγαπητοί, παρακαλῶ ὡς παροίκους καὶ παρεπιδήμους <u>ἀπέχεσθαι</u> τῶν σαρκικῶν ἐπιθυμιῶν αἵτινες στρατεύονται κατὰ τῆς ψυχῆς· 12 τὴν ἀναστροφὴν ὑμῶν ἐν τοῖς ἔθνεσιν <u>ἔχοντες</u> καλὴν, ...
『개역개정』	11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u>제</u> <u>어하라</u> 12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u>가</u> <u>져</u> ...
『새번역』	11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 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 욕을 <u>멀리하십시오</u> . 12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u>바르게 하십시오</u>
『공동개정』	11 사랑하는 형제들, 낯선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 고 있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움 을 벌이는 육체적인 욕정을 <u>멀리하십시오</u> . 12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행실을 <u>단정하게 하십시오</u>
『새한글』	11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들이며 체류자들인 여 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욕

*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백석대학교 신약
학 교수. youngschae12@bu.ac.kr.

망들을 멀리하십시오 12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여러
분은 행실을 반듯하게 가지십시오 ...

1.1. 차이점 관찰

(1) 11절에서 『개역개정』은 ‘제어하라’고 번역하는 반면, 나머지 한글 번역본들은 ‘멀리하십시오’라고 옮겼습니다.

(2) 12절에서, 『새번역』은 ‘바르게 하십시오’, 『공동개정』은 ‘단정하게 하십시오’라고 번역했고, 『새한글』은 『개역개정』의 ‘가져’와 유사하게 ‘가지십시오’라고 번역했습니다.

1.2. 외국어 역본 참조

(1) 11절에서 KJV, ESV, NRS, NIV는 ‘멀리하십시오’ 등에 해당하는 원문을 ‘abstain from’으로 번역했고, <루터성경>(이하 LB)도 ‘Enthaltet euch von’으로 번역했습니다.

(2) 12절에서 ESV는 ‘바르게 하십시오’ 등에 해당하는 원문을 ‘keep your conduct’, NRS는 ‘conduct yourselves’, RSV는 ‘maintain good conduct’로 번역했습니다. 유사하게 LB는 ‘führt’로 번역했고, KJV는 다소 구체적으로 ‘having your conversation honest’로 옮겼습니다.

1.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11절에서 다른 한글 번역본들처럼 ‘멀리하십시오’라고 번역한 것은, 『개역개정』의 ‘제어하라’가 갖는 ‘통제’의 개념보다는, 원문의 ‘피하라’는 의미를 살리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12절에서 다른 한글 번역본들의 비교적 ‘도덕적 명령’의 뉘앙스와는 달리 ‘가지십시오’라고 번역한 것도 원문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살리려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11절에서 문제가 되는 동사의 1인칭 직설법 원형은 ‘ἀπέχω(문자적으로, 갖지 않는다)’이며 12절에서는 ‘ἔχω(가진다)’로서, ‘명확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 보입니다.

(2) 이 동사는 이 문맥 안에서 금욕적인 통제나 도덕적인 요구를 내포하면서도, 동시에 나그네 생활 동안 ‘무엇을 소유해야 하는가’에 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수신자들은 이미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라는 복음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고, 이것이 그들의 나그네 된 생활의 근거입니다(1:3-4).

2. 베드로전서 2:19

GNT ⁵	τοῦτο γὰρ <u>χάρις</u> , εἰ διὰ <u>συνείδησιν θεοῦ</u> ὑποφέρει τις λύπας πάσχω·ν ἀδίκως.
『개역개정』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u>하나님을 생각함으로</u> 슬픔을 참으면 이는 <u>아름다우나</u>
『새번역』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u>하나님을 생각하면서</u>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u>아름다운</u> 일입니다.
『공동개정』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더라도 <u>하느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며</u>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u>아름다운</u> 일입니다.
『새한글』	이것은 <u>은혜로운</u> 일이니까요. 곧 누군가가 불의하게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u>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u> 때문에 견뎌 낸다면 말입니다.

2.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은 대체로 ‘하나님을 생각하며’로 번역한 반면, 『새한글』은 ‘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로 번역했습니다.

(2) 또한,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이 대체로 ‘아름다우나’로 번역한 원문을, 『새한글』은 ‘은혜로운’으로 번역했습니다.

2.2. 외국어 역본 참조

(1) KJV와 NET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등에 해당하는 원문을 문자적으로 ‘conscience toward God’로 번역했고, 유사하게 NIV는 ‘conscious of God’으로 번역했으며, LB는 직접적으로 ‘Gewissen(양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RSV와 ESV는 ‘mindful of God’으로, NRS는 조금 풀어서 ‘aware of God’으로 번역했습니다.

(2) ESV는 ‘아름다우나’ 등에 해당하는 원문을 ‘gracious’로 번역했고, LB도 유사하게 ‘Gnade(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편 KJV는 ‘thankworthy’로, NRS는 ‘credit to you’로, RSV는 ‘approved’로, 그리고 NIV는 ‘commendable’로 번역했습니다.

2.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새한글』이 ‘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이라고 번역한 것은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것이며, 베드로전서에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갖는 중요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 다른 한글 번역본들과는 달리 ‘은혜로운’이라는 표현을 택한 것도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며, 문맥 안에서 ‘은혜’를 나타내는 일의 중요성을 고려한 번역이라고 판단됩니다.

2.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원문에서 συνείδησιν θεοῦ를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과 함께 아는(마음)’입니다. 그리스어에서 양심(良心)이란 ‘선한 마음’이기 전에, 원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알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2) ‘하나님과 함께 아는 마음’은 ‘거듭난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알게 된 은혜를 아는 마음’이고, 그것이 성도가 갖게 된 ‘새롭게 된 양심’ 즉 ‘단지 의(義)와 불의(不義)를 아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양심’을 뛰어넘는 ‘은혜를 아는 양심’, 곧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선한 고난도 감수하는 마음입니다(벧후 3:16-18).

(3) 여러 번역본이 ‘아름다운’ 또는 ‘추천할 만한’ 등의 의미로 번역한 원문은 χάρις입니다. 『새한글』이 이 단어를 ‘은혜로운’으로 번역한 것은, ‘거듭난 심령의 새롭게 된 양심’이 통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와 불의를 아는 양심’을 포함하면서도 그 이상의 ‘은혜의 차원’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잘 표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3. 베드로전서 2:9

GNT ⁵	‘Ὑμεῖς δὲ <u>γένος ἐκλεκτόν</u> , <u>βασιλείον ἱεράτευμα</u> , <u>ἔθνος ἅγιον</u> , λαὸς εἰς περιποίησιν, ...
『개역개정』	그러나 너희는 <u>택하신 족속</u> 이요 <u>왕 같은 제사장</u> 들이요 <u>거룩한 나라</u> 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
『새번역』	그러나 여러분은 <u>택하심을 받은 족속</u> 이요, <u>왕과 같은 제사장</u> 들이요, <u>거룩한 민족</u> 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
『공동개정』	그러나 여러분은 <u>선택된 민족</u> 이고 <u>왕의 사제</u> 들이며 <u>거룩한 겨레</u> 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

『새한글』 여러분이야말로 선택받은 종족, 임금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맡은 사람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
유가 된 백성입니다. …

3.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은 ‘택하신 족속’으로, 『새번역』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으로 번역했고, 『새한글』은 유사하게 ‘선택받은 종족’으로 옮긴 반면, 『공동개정』은 ‘선택된 민족’으로 번역했습니다.

(2)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각기 ‘왕 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 번역했는데, 『공동개정』은 ‘왕의 사제들’로, 그리고 『새한글』은 이와 유사하지만 ‘임금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맡은 사람들’로 풀어 번역했습니다.

(3) 『개역개정』이 ‘거룩한 나라’로 옮겨 놓은 것을 『공동개정』은 ‘거룩한 겨레’로 번역했고, 『새한글』은 『새번역』의 경우처럼 ‘거룩한 민족’으로 번역했습니다.

3.2. 외국어 역본 참조

(1) ESV와 NRS는 VUL의 ‘genus electum’처럼 ‘a chose race’로 번역한 것에 반해, NIV는 ‘a chosen people’로 그리고 KJV는 ‘a chosen generation’으로 번역했습니다.

(2) 『개역개정』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번역한 문구는, KJV, NRS, NIV, ESV와 같은 영어 번역본들의 ‘a royal priesthood’에 상응합니다. VUL 역시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표현인 ‘regale sacerdotium’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3) 『새한글』과 『새번역』이 ‘거룩한 민족’으로 번역한 문구를, KJV, NRS, NIV, ESV와 같은 영어 번역본들은 모두 ‘a holy nation’으로 번역했고, 이는 VUL의 ‘gens sancta’와 일치합니다.

3.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새한글』의 ‘선택받은 종족’에서 ‘종족(種族)’이나, 『개역개정』의 ‘택하신 족속’과 『새번역』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에서 ‘족속(族屬)’은 본래 ‘혈통(血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원문인 γένος가 뜻하는 바에 가깝습니다. NIV의 ‘a chosen people’이나 KJV의 ‘a chosen generation’은 다소 임의적인 해석으로 여겨집니다.

(2) KJV, NRS, NIV, ESV의 ‘a royal priesthood’는, 그리스어 원문보다는 VUL이 번역한 ‘regale sacerdotium’의 선례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개역

개정』과 『새번역』의 ‘왕 같은 제사장’은 이 계통의 번역을 따른 것이고, 『공동개정』의 ‘왕의 사제들’이나 『새한글』의 ‘임금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맡은 사람들’은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것입니다.

(3) KJV, NRS, NIV, ESV의 ‘a holy nation’이라는 문구도 VUL의 ‘gens sancta’의 선례를 좇은 번역이며, 『개역개정』의 ‘거룩한 나라’ 역시 이를 따른 번역입니다. 『공동개정』의 ‘거룩한 겨레’ 그리고 『새한글』과 『새번역』의 ‘거룩한 민족’처럼, ‘민족/겨레’라는 표현이 ‘나라’보다 원문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3.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은, VUL이 번역한 선례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개역개정』도 ‘택하신 족속’을 제외하고는, 이 영어 번역본의 전통을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원문의 γένος ἐκλεκτόν에서 γένος는 ‘혈통’을 강조하는 ‘종족, 족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신약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두 들어와 있었지만, 그들을 ‘한 종족, 한 혈통’이라 부르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여 부르신 공훈과 은혜’ 때문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3) 베드로전서 1:9의 문맥에서 새 언약 백성 된 교회를 가리키는 βασιλείου ἱεράτευμα는, 옛 언약 백성을 지칭했던 출애굽기 19:6의 ‘제사장 나라’와 일치하는 표현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해당 문구의 의미는 ‘제사장 공동체’에 가깝습니다. 『공동개정』의 ‘왕의 사제들’이나 『새한글』의 ‘임금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번역들은, 원문의 의미와 전통적 해석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표현으로 보입니다.

(4) 영어 번역본들과 『개역개정』은 VUL의 번역처럼 ‘a holy nation(거룩한 나라)’으로 옮겼지만, 원문의 ἔθνος ἅγιον에서 ἔθνος는 ‘민족’의 뜻에 가깝습니다.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초기 교회 안에 공통된 문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그들의 ‘거룩함’이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 백성은 ‘거룩함’이 특징인 다(多)민족적 교회라는 뜻입니다.

4. 베드로전서 3:21

GNT⁵

ὁ καὶ ὑμᾶς ἀντίτυπον νῦν σώζει βάπτισμα, οὐ σαρκὸς

	ἀπόθεις ῥύπου <u>ἀλλὰ συνειδήσεως ἀγαθῆς ἐπερώτημα εἰς θεόν</u> , δι' ἀναστάσ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개역개정』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u>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u>
『새번역』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 내는 것이 <u>아니라</u>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u>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u>
『공동개정』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u>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느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u>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한글』	그 물은 또한 세례를 미리 보여 준 것인데, 세례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뚱이에서 더러움을 떨쳐 내는 <u>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양심이 응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u>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요.

4.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은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에서처럼 ‘A가 아니라 B’라는 식으로 번역했고, 『새번역』, 『공동개정』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새한글』은 ‘…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 것입니다’로 번역함으로써 ‘A만이 아니라, B도’라는 의미를 뚜렷이 했습니다.

(2) 『새번역』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로 번역한 문구를 『공동개정』은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느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로 번역했습니다. 한편 『새한글』은, 『개역개정』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로 번역한 것과 유사하지만, 『개역한글』의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의 의미를 살려, 최종적으로 ‘선한 양심이 응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로 옮겨 놓았습니다.

4.2. 외국어 역본 참조

(1) KJV, ESV, NRS와 같은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은 NIV에서처럼 ‘not

… but’의 구조로 이해합니다. 현대어로 풀어 쓴 CEV는, ‘… more than just washing your body; It means turning to God with a clear conscience’로 해석함으로써 원문의 ‘not just … but also’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2) ESV, NAS, NRS, RSV는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의미로서 ‘an appeal to God for a good conscience’로 번역했고, KJV는 ‘선한 양심이 응답하는’의 의미로서 ‘the answer of a good conscience toward God’로 번역했습니다. 한편, NIV는 ‘선한 양심을 서약하는’ 의미로서 ‘the pledge of a clear conscience toward God’로 번역했습니다.

4.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원문의 *σαρκὸς ἀπόθεσις ῥύπου*가 단지 세례 받을 때 ‘몸을 씻는’ 의례를 가리킨다면, οὐ를 단순히 부정하는 의미로(‘…이 아니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를 세례를 통해 ‘육(肉)이 더러움이나 죄를 벗어버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οὐ는 단순 부정이 아닌 ‘… 만이 아니라(not just …)’의 의미가 적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참조. 약 1:21).

(2) 원문의 *ἐπερώτημα*는, 다양한 번역본들에서처럼 ‘간구, 응답 또는 서약’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συνειδήσεως ἀγαθῆς ἐπερώτημα*는, ‘선한 양심’을 목적적으로 보아 ‘선한 양심을 간구, 또는 서약’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주격으로 보아 ‘선한 양심이 응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4.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세례와 관련하여 ‘육체의 더러움을 떨쳐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근거한다면(J. Calvin), 이는 단순 부정의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원문의 οὐ … ἀλλὰ의 구조는 이 문맥 안에서 οὐ 뒤에 오는 내용을 부정한다기보다 ἀλλὰ 뒤에 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맥 안에서 세례의 토대가 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두 사건과의 관계와도 병행됩니다. 즉,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속죄의 의미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에 근거하여 하늘 보좌에까지 이르는 승천의 여정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2) *συνειδήσεως ἀγαθῆς ἐπερώτημα*에서 ‘선한 양심’을 주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이유는, *ἐπερώτημα εἰς θεόν*에 포함된 전치사 *εἰς*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을 가리키는 표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ἐπερώτημα*는 ‘하나님을 향한’ 무엇인데, 그것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한글』은 이를 ‘응답’

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갖는 이런 ‘방향성’은, 원문의 문맥에서 노아의 방주가 물의 심판을 피한 것뿐 아니라 마른 땅으로 나아가는 방향성,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다는 방향성에도 중첩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세례란, ‘나그네와 체류자’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의 길을 따라, 죄를 피할 뿐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르는 여정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제어>(Keywords)

선한 행실, 제사장 나라, 선한 양심, 십자가, 세례.

good works, kingdom of priests, good conscience, cross, baptism.

(투고 일자: 2024년 7월 20일, 심사 일자: 2024년 9월 24일, 게재 확정 일자: 2024년 9월 29일)